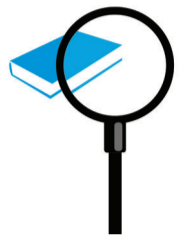


한국전통등연구원에서 복원한 전통등.

연등에 대한 깊이있는 조명...진리의 빛으로 세상을 비추다



박성천 기자가 추천하는 책

연등문화의 역사

백창호·오대혁 지음

“무엇을 웃고 무엇을 기뻐하라. 세상은 끊임없이 불타고 있는데 그대는 암흑에 둘러싸인 채 어찌하여 등불을 찾고 있는가?”(법구경 146)

등불을 보고 있으면 마음이 차분해진다. 등불은 환하면서도 따스하다. 다친 마음을 위로해주고 어두운 길을 비추기도 한다. 이미지도 다양하다. 커다란 붉은 감이 어두운 허공에 내걸린 듯 하며, 붉은 꽃송이가 동동 떠 있는 모습 같기도 하다.

초파일(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거리 곳곳은 연등으로 화사하다. 광주전에도 밤이면 불을 밝힌 등불로 거리가 따스하면서도 안온하다. 모양과 색



은 다르지만 연등이 담고 있는 뜻은 깊고 풍요롭다. 부처님 오신날을 앞두고 한국의 연등회 역사를 조명한 책이 발간됐다. '연등문화의 역사'는 민속적 의미뿐 아니라 종교와 정치, 문학, 예술 등의 다양한 관점에서 연등을 살펴본다. 유네스코 인류무형유산 연등회 전문위원을 맡고 있는 백창호 한국전통등연구원 원장과 한국전통등연구원 연구이사인 오대혁 '제주일보' 논설위원이 공동 저자로 참여했다. 불교와 민속 등 여러 분야에서 연구와 논문을 써왔던 저자들의 시각은 연등에 대한 깊이있는 시각을 제공한다.

저자들은 인도, 중국, 한국으로 이어진 수천 년 등불 역사를 다양한 학문과 예술 장르를 오가며 살펴본다. 저자들은 먼저 불교 등불, 연등의 문화사 등을 짚어본다. '연등' (燃燈)은 연꽃을 뜻하는 '연' (蓮)이 아니다. '불사른다'는 의미의 '연' (燃)이 쓰여 등불의 다른 이름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연등은 일정한 대로 연등놀이할 때 밝히는 등불 또는 사월초파

일에 공양을 드리는 의미도 함의한다. 불교 연등은 언제부터 시작됐을까. 불교신자들이 불을 밝힌 것은 오래 전부터였다. 당나라 의정이 번안한 책에는 부처님이 불법을 전파할 때부터 연등회가 열렸다고 나와 있다. 이를 미루어 보면 인도의 석가모니부처님(기원전 624-기원전 544)이 존재했던 시기부터 행해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처님은 난타 여인의 등불 공양에 대해 높은 평가를 한다. 화려하고 장엄하게 등불을 밝힌 이들을 보다가 난타 여인의 소박한 등이 훨씬 가치가 있다는 의미다. 즉 전 재산을 등불로 바꾼 여인은 자신의 안락보다는 다음 생애에서의 지혜 광명을 얻어 많은 생명의 어둠을 없애 달라고 소원을 빌었기 때문이다.

연등회가 인도에서 불교의례로 정착돼 꾸준히 이

어졌는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중국 승려 법현이 405-411년 즈음 인도를 기행한 내용을 담은 '고승법현전'을 보면 연등 행사와 관련된 내용이 있다. 즉 "바라문이 와서 부처님을 초청하면 부처님이 차례로 성으로 들어가서 성안에 머물며 이를 밤을 지내는데 밤중 내내 등불을 밝히고 기악을 공양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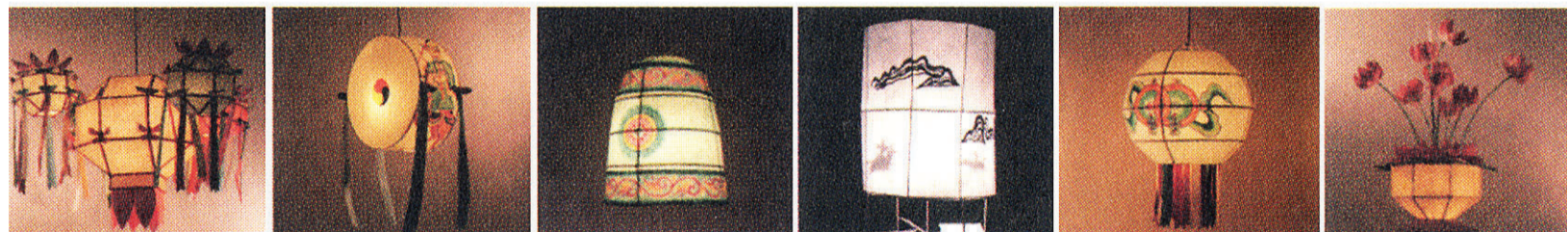
저자들은 중국의 연등문화에 대해서도 이야기한다. 춘추전국시대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등불이 어떻게 정치권력과 연결되고 역사의 부침을 겪었는지를 들여다본다. 기복과 오락의 당나라 등불축제를 비롯해 백성과 함께 즐겼던 송나라 등불축제, 명나라 흥망성쇠를 보여주는 등불축제 등이 소개돼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신화와 민속에서 '불'이 지니는

함의는 다채롭다. 불을 사용한 흔적은 구석기시대부터 있어 왔으며, 무속의 굿마당에서는 등불이 활용됐다.

연등회는 9세기 신라시대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이후 고려시대와 조선시대를 거쳐 오늘날 불교의식의 주요한 문화로 자리매김했다. 지난 2012년에는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됐으며 2020년에는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에 등재됐다.

저자들은 "연등은 밤을 밝히는 도구를 뛰어넘어 우리 인류가 무엇을 도모해야만 하는지를 알려 준다"며 "탐욕과 성냄, 어리석음을 훌훌 벗어 버리고 소외된 곳을 밝게 비추고 지혜로써 지구와 인류를 구해 내야만 한다는 것을 연등은 오랜 세월 가르쳐왔던 것"이라고 말한다. <담앤북스·3만6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시인들

박창세 지음

시인은 어떤 사람들일까. 아니 시는 누가 쓸까. 고전적인 시인에 대한 상은 고답적이며 비현실적으로 보이게까지 하다. 사실 시를 쓴다는 것은 더욱이 취미를 넘어 자신만의 창작세계를 열어간다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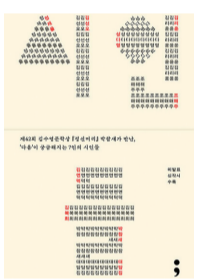
예전과 달리 시인으로 활동할 수 있는 경로가 다양해졌다. 다양한 문예지와 잡지, 신춘문예 등을 통해 문단에 나올 수 있고 또 창작한 시를 시집으로 발간해 시인으로 데뷔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이 상징하고 있는 지극한 시적 세계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적잖은 고투를 치러야 한다.

읽기와 쓰기를 병행하며 독립 창작자로서의 행보를 이어가는 박창세 시인이 7명의 시인과의 대화를 담은 책 '시인들'을 발간했다. 시인이 만난 시인들인 셈이다. '정신머리'라는 작품집으로 제42회 김수영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는 저자는 "이 책을 만들다 시인이 됐다"고 고백을 한다. 저자가 만난 시인들은 정재율, 김선오, 성다영, 김리운, 조해주, 김연덕, 김복희다.

책의 표지부터 이색적이며 흥미롭다. 시인들이라는 세 글자 제목에 대담에 참여한 시인들의 이름이 반복적으로 쓰여 있다. 하나의 디자인으로 볼 수 있는 표지는 시적이라는 느낌을 환기한다.

저자는 "제가 생각하는 좋은 '대담'이란 서로의 부딪힘이 되는 일입니다. 그러나 서로 거의 비슷한 에너지로 맞받아쳐야만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불꽃 같은 게 있다고 믿는데요"라며 "그러기 위해서는 묻는 저 역시도 꽤 몸집 있는 돌이 되어야 합니다. 궁금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제가 먼저 마음을 열고 더 많이 이야기를 꺼내 보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말한다.

<세미콜론·1만8000원>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이시형의 인생 수업

이시형 지음

"인생 90년을 살아보니 결국은 사람, 관계가 인생이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정신과 의사이자 뇌 과학자 이시형 박사가 90년을 살아오면서 만난 사람과 삶에 관한 에세이 '이시형의 인생 수업'을 출간했다.

책은 저자가 100권 이상의 책을 출간하면서도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자신의 지나온 인생과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전한다. 파스하면서도 위트 있는 조언, 오랜 삶의 인생론으로 써 내려간 문장은 하나하나 마음에 울림으로 다가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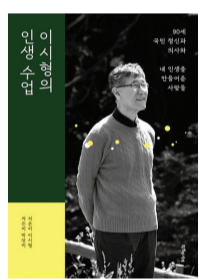
1부 '나는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려지고 있다'에서는 일제강점기 경직된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 보낸 어린 시절, 전쟁을 겪으면서도 든든한 세 친구와 의지하며 견뎌낸 청소년기, 미국 인턴 시절과 노년기에 이르기까지 삶을 돌아보며 '관계'가 결국 인생이었음을 말한다.

2부 '인생 수업 9교시'에서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꼭 한 번 생각해 봐야 할 키워드를 짚어 짧은 가르침을 남겼다. 3부 '인생 수업 인터뷰'는 심리상담학자 박상미 교수와 나눈 인터뷰를 담았다.

90년의 연륜이 묻어나는 이야기들은 힘들고 막막한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고민하는 이들에게 길을 제시한다.

"인생이라는 게 반드시 행복을 향해서만 달리는 게 아니에요. 오르막이 있다면 내리막이 반드시 있고 괴로움도 한 과정이라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젊은이들이 '실패한 인생'이라는 말을 잘 쓰는데, 실패라는 말은 90세 정도 되거든 그때 하세요. 그전에 겪는 일들은 인생의 한 과정입니다. 실패라는 말을 하기에 너무나 이르지요."

<특별한 서재·1만8000원>
/이보람 기자 boram@kwangju.co.kr



잡초학자의 아웃사이더 인생 수업

이나키기 히데히로 지음, 정문주 옮김

'도꼬마리'라는 잡초는 열매 속에 길쭉한 씨앗과 찢막한 씨앗 두 가지를 지니고 있다. 긴 것은 바로 씨를 틔우지만 짧은 것은 좀처럼 씨를 틔우지 않는다. 어느 쪽이 더 나은 씨앗일까.

물론 식물이 서둘러 결실을 맺으면 좋겠지만 너무 건조하거나 추운 계절에 일찍 씨를 틔우면 오히려 생육에 불리한 면도 있다. 늦더라도 '나'의 조건에 알맞게 발아하는 것이야말로 '도꼬마리'가 살아남아온 생존 전략인 것 같다.

도꼬마리의 짧은 씨앗처럼 세상의 '아웃사이더'를 자처하는 이들을 위로하는 책이 나왔다. 일본의 대표적인 식물학자이자 대중 과학 저술가인 이나키기 히데히로의 '잡초학자의 아웃사이더 인생 수업'은 식물학에 대한 9가지 키워드를 통해 인간의 개성, 본성, 나다운 삶에 대해 이야기한다.

"조건에 따라서는 인간의 눈에 아웃사이더로 보이는 것이 뛰어난 능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 오래전 자연계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커다란 환경 변화에 직면했을 때, 그 환경에 적응한 생물은 평균값과 동떨어진 모습을 보이던 아웃사이더였다"

저자는 '생물의 평균치'를 예로 들며 생물 다양성을 확보한 종이야말로 끈덕지게 생존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자연계에서 '아웃사이더'로 치부되는 종이야말로, 오히려 '자신만의 생존 전략을 토대로 뿌리내린 우성인자'라는 논지는 의미 깊다.

책은 잡초가 물을 주지 않아도 살아남고, 오히려 생육 조건을 완벽하게 맞춘 채소나 작물이 여름 가뭄에 말라 죽는 것에서 인생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평소 힘을 들여야 할 때, 잡초는 잡초로 뿌리를 뽐내고 있다가 가뭄과 같은 삶의 위기가 올 때 이를 원동력 삼아 버터낸다는 것이다.

<더숲·1만5000원>
/최류민 기자 rubi@kwangju.co.kr



키농샤

광주일보 문화예술매거진

2024년 5월호

2024년 4월 30일 발행
구독신청 : 062-220-0550
팩 스 : 062-222-0195

특집 광주, 도시정원을 꿈꾸다

- 굴목 숲, 아시아예술정원, 민간정원
- 정원도시 순천에 길을 묻다
- 5월 개관, 애남 솔라시스 산이정원
- 도시 브랜드가 된 미국의 도시공원들

맛과 함께 강진 여행

백운원림 개별탐방 하멜마을

백운동 원림 | 가우도 출렁다리와 마량 늪도수산시장
강진만 생태공원 | 병영시장 10월까지 '블룸블파'
다산명가 '진북류음고추장' | 남도농산 여주차·쌀귀리 웨이크
가우도 출렁다리의 낭만 '카페 가을'

한국학중앙연구원·광주일보 공동기획 '호남 서화가 열전' ②

이재 허백련 '삶과 예술은 경쟁하지 않는다'

공연 화제 1000회 맞는 광주예술의전당 '광주상설공연'

박물관, 어디까지 가봤니? ③
부챗살 따라 펼쳐진 부채의 역사, 전주 부채박물관

에향 초대석

필생의 역작 『문신』 펴낸 소설가 윤홍길

"살아 숨쉬는 우리 민족 정체성을 담았습니다"

에향 청간 40주년, 남도투어⑤

유배의 그늘에서 문화가 꽃피다 남도 유배지를 찾아서

황인의 예술가와 친구들⑥
과묵한 판화가, 강국진 청년 댄 한강번서 행위예술 동참
임의진 시인의 광주 속살 순례기 '변두리와 언저리'⑧
남부대학교 시립국제수영장 '수영을 제대로 배우리라'
오동진의 '전지적 시네마 시점'
한 방 펀치 마동석표 '범죄도시'... 한국판 람보·록키시리즈로

문화시인으로 살아가기⑩
"미술 사랑의 풍요로움 나누고 싶어요"
광주미술관회

호남의 누정⑨-광주 풍암정
의병장 형제 잃은 울분 삼키며 '무등'의 품에 안긴 정자